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위험에 직면해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 말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7일)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출범사를 하고 있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핵심불사 '천년을 세우다' 본격화

조계종, 4월 19일 추진위원회 출범식 봉행

마애불 입불, 명상 센터 건립 추진
진우 스님 "新 천년을 세우는 불사"
종정예하 "머잖아 존안 뵙게 될 것"
교구본사, 직영사찰 등 기금 약정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명상센터 건립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4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미래천년 동력 세울 범불교적 조직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추진위원회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신도단체장 · 명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불교적 조직으로 구성됐다.

주요 불사를 주도할 부문별 추진단장으로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추진단장 종천 스님(불국사 주지)과 탄원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명상센터 추진단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교구특성화 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미래세대 인재양성 단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참여한다.

'천년을 세우다', 불교중흥 이끌 불사

이날 출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마애불이 바로 세워져 존안을 뵙기를 축원했다. 성파 대종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석불을 세움도 시절인연이요 마애불이 스스로를 감춤도 시절인연이라. 숨었던 불상이 다시 나타나신 것 역시 시절인연이 아니겠는가"라며 "머잖아 장엄한 존안(尊顔)을 뵙게 될 터이니 천상천하가 환희할 일"이라고 축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범사를 통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원(悲願)을 안고 넘어진 채 엎드린 부처님을 바로 모심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이 불사는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될 것이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주춧돌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 천년이라는 건물을 올려야 한다. 바로 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며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부대중, 불사 성공 마음 모아

출범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각 기관 · 협회차원의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

열암곡 마애불 입불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 역시 사업 협력을 다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제는 열암곡 마애불이 안전하게 바로 서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흔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 교구본사, 직영사찰, 지역 사찰들이 불사 기금을 약정했다. 기금 약정에는 74개 사찰이 동참했으며, 총 42억 5900만 원이 모연됐다.

2025년 열암곡 마애불 입불 목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됨에 따라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는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법회'가 봉행된다.

마애불 입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에 발표된다. 이후 2024년 입불 실대형 모의시험을 거쳐 2025년 입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하반기 중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명상지도자와 정치 · 문화 · 사회계 유명인사를 초청해 프로그램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프로그램을 확정해 보급과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종단 명상센터 건립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남 담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별 명상센터 수탁운영도 추진될 계획이다.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5월 4일부터 폐지 예정

기획실장 성화 스님 기자간담회
"개정 法 시행 앞서 막바지 협상"

전국 70여 사찰에서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가 5월 4일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1년에 이뤄진 쾌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 측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성화 스님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월 4일부터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최종적인 실무 협상을 기획재정부 등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49조 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을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조계종과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원 범위를 두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화 스님은 "무료 개방이 이뤄지면 사찰 방문객들이 20~30% 이상 급증이 예상된다. 수행환경 훼손과 문화재 보존 관리, 환경 유지 비용 등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문화재관람료 감면제도 시행에는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현대불교신문 업무협약

4월 18일 공동기획 MOU 체결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등 모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이 4월 18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연계에 상호 협력한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양 기관의 업무교류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익활동에서의 홍보활동을 강조한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30년사를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올 한해 활동성과를 홍보하고 후원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불교신문 대표 혜도 스님은 "30년간 이어진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활동은 불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면서 "아름다운 활동을 적극 보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같이 내년 10월 창간 30주년을 맞는 만큼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다채로운 협력을 통해 발전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활동과 주요 행사를 심도 있게 보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사부대중일동
주소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 061-754-5247

